

현장 취재 -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

국내 도서관계 만남과 교류의 장 현장과 학계의 '동반자적 마인드' 구축 확인하다



한국도서관협회(회장 한상완)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경기도가 후원하는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가 열렸다. 지난 달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국제전시장 KINTEX에서 열린 이번 행사의 주제는 '우리나라 미래를 담은 도서관'으로서 전국의 도서관 관계자, 문헌정보학자 등이 참여해 논문발표와 워크숍, 세미나 등으로 진행됐다.

전국도서관대회는 국내 도서관 관계자들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폭넓은 정보를 교환하고, 현장에서 이론 성과와 연구 결

과를 함께 나누는 도서관계 최대의 축제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해가 거듭될수록 연구발표나 전시 내용, 참가 인원 등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번 도서관대회는 또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를 1년 여 앞둔 시점에서 열려 한층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다. 국내 도서관계의 단결과 노력으로 2006서울WLIC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전 세계의 도서관 관계자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도서관협회 한상완 회장은 "이번 도서관대회는 현장과 학계가 만나 실질적인 연구와 실천의 계기를 만들어 내는 귀한 시간"이라며 도서관계와 업계가 동반자로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특히 이 행사에 참석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도내 도서관 현실을 지속적으로 개선, 2006년 말이면 120개에 이르는 도서관을 갖추게 될 예정"이라며 "이번 대회가 2006서울WLIC에 앞서 우리나라 도서관 현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선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독서진흥을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하는 제11회 독서문화상 시상도 있었다.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와 부산시 금정도서관이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국무총리표창에 김천시립도서관과 전주시립도서관 사서 김민영 씨, 문화관광부장관상에는 최명옥 씨 외 20명이 수상했다. 이어 감사패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에게, 명예사서자격증은 신기남 2006서울WLIC 조직위원장에게 증정됐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이날 《한국도서관협회 60년사》의 출판기념회를 가진 데 이어, KINTEX 컨벤션홀에서 각종 세미나를 진행했다. '공공도서관 청소년 독서회 활성화 방안'과 '독서

치료와 도서관'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이어, '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서비스' 주제의 워크숍 등이 열렸다. 또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는 '학교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만나기'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학술행사가 이어졌다.

대회 이틀째인 20일에는 발표 논문 공모과정을 거쳐 선정된 도서관 관련 연구논문 및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일찍부터 각 세미나실에서의 일정이 진행됐다. 특히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인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만남'에서는 기록물의 파일링 시스템과 국내의 기록관리학의 교과과정을 비교·연구하고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자기록물을 위한 보존매체의 관리와 정보센터의 지식관리 유형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내년 8월에 열릴 국제도서관협회연맹 IFLA의 2006서울WLIC를 널리 알리고자 홍보부스가 1층 전시장 내에

설치됐으며 특별 이벤트로 우리나라 전통 의식 가운데 하나인 '책거리: 세책례(洗冊禮)'를 재현해 참가자와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한국도서관협회 前 회장인 신기남 2006서울WLIC 조직 위원장은 "2006년 서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한국의 도서관계를 더욱 도약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대회의 대주제를 '도서관: 지식정보사회의 역동적 엔진'으로 선정한 만큼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역동적 엔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취재 홍이현 기자 | 사진제공 도서관협회

INTERVIEW

한상완 도서관협회장

선진 인력 키워내려면 학교도서관 정비부터



"수천억원을 들여서 학교도서관을 짓겠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서교사를 배치 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빛 좋은 개살구나 다를것이지요."

지난달 19일 도서관대회 현장에서 만난 한상완 도서관협회장은 "더 이상 '데모'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숨을 토했다. 지난 9월 30일 비가 내리는 와중에 펼쳐진 '학교도서관 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의 흥분이 아직도 식지 않은 듯했다. 지난 결의대회에선 그를 비롯한 600여 명의 도서관 관련자들이 사서교사를 법정 정원에 맞게 배치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올해 7월 1일 취임 이전부터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상임대표 및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공동대표 등으로 도서관, 독서문화 관련 NGO 활동을 해 온 한 회장은 '교육의 핵심 장'으로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강조했다. 선진국의 사례들을 점검해보면 이미 다른 국가에선 정규수업을 마치고 혹은 정규수업 중에 학교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례가 일반화돼 있다. 교과서 하나 놓고 수업을 진행하는 우리와는 달리 학생들은 도서관을 찾아 책, 백과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접하고 보다 폭넓은 학습의 기회를 갖는다. 한 회장 말에 따르면 기본적인 교과목 학습도 도서관 이용 없이 진행이 힘든 상태다.

"우리도 1960, 70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을 펼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군사정권하에서 당장 먹고사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만 정책 수립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학교야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됐죠. 정책수립자, 학부모, 교사 모두 왜 도서관이 필요하고, 그 역할이 중요한지 자각할 시간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회장의 설명대로라면 학교도서관은 공교육 시장의 문제 해결책으로도 손꼽힌다. 도서관에 마련된 각종 자료와 프로그램들을 잘만 이용한다면 응용력, 창의력, 총체적 사고 등이 필요한, 미래 인력양성에 필수적인 교육도 가능해진다. 물론 이를 위해선 그동안 술하게 강조돼왔던 기본적 공간 확보 뿐 아니라, 전문 사서교사의 투입이 관건이다. 국어, 영어, 수학 등 개별과목 교사들은 그 분야에만 정통하지만, 사서교사는 이 교과들을 모두 총괄해 유기적 학습망을 구축할 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기획까지 가능하다. 한 회장은 인력양성도 필요하지만 인력 배치면에서 정부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도서관협회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앞장 서고 올바른 도서관 문화와 독서문화가 정착되도록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회장은 특히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유기적 관계망 형성을 하나의 과제로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출판 기획안이 나오면 사서들이 미리 이를 검토하고 평가서를 작성한다. 이는 책이 나오는 직후 이 평가에 기초해 책을 구입하는 시스템이다. 그만큼 사서는 전문 서평가 못잖게 출판 콘텐츠에 관심이 많고, 출판계와 함께 이에 대해 고민하는 또 하나의 출판 인력이다. 한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1만 천 개 학교도서관에서 최소 한 권씩만이라도 구입하면 만 여 권이 판매된다"며 "일단 출판계가 청소년을 위한 양서를 꾸준히 출간해주고, 사서들을 비롯해 현장 근무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도서관 활성화 운동 등에 대해 '남의 일'이란 투의 시각도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김정현 기자